

# 조선시대 궁궐 내 금천교의 어원(語源)과 서수(瑞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of the Etymology and Auspicious Animals of Geumcheon-Bridge in the Royal Palace of Joseon

Lee, Ho-Sun 이 호 선\*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Han, Dong-Soo 한 동 수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Geumcheon-Bridge is the first bridge located on the main entrance into the royal places of Joseon. In the society of Joseon where principles of I Ching(易) and Feng-Shui culture were accepted, diverse symbolic meanings were given during the construction of palaces and same applied to the building of Geumcheon-Bridge as well. The name Geumcheon means water that is the basic element of life and the root of all things. As someone with the highest authority in the country, the king who can keep water clean can make life easier for the people and thus gain virtue(德). The stone animals found along the bridge can be assumed to have been placed there as protectors, the guardians of water to keep and manage the stream. The name Geumcheon originates from The Eight Trigrams. The water flowing into the Changdeok-Palace flows to North-West(乾方) which falls into gold(金) of the Five Elements Theory thus the name Geumcheon was given to the stream. Okcheon-Bridge(玉川橋) of Changgyeong-Palace and Jinshahe-River(金水河) in the Forbidden City of China were also named using the same system. The word Geumchoen which started being used in Changdeok-Palace was then introduced into all palaces to refer to the water flowing through them. There are few reasons behind how these waters were given the name Geumcheon. Firstly, the name of the bridge in Gyeongbok-Palace was named after Geumcheon-Bridge and secondly, the bridge was built when King Taejong and Sejong were living in Changdeok-Palace which resulted in the bridge being given familiar name used in Changdeok-Palace. Thirdly, water flowing into Changdeok-Palace and from Gyeongbok-Palace comes from North-West direction in The Eight Trigrams which made it reasonable to give the name Geumcheon to the body of water flowing in Gyeongbok-Palace. The name Geumcheon seems to have become a general name referring to the body of water flowing inside palaces as it was used in both the official palace(junggung) and the secondary palace(igung). This demonstrates a case where culture of a country embraced within the creation process of a vocabulary and shows that the culture of Feng-Shui of the palaces are deeply rooted inside the origin of the name Geumcheon · Okcheon. Such system of thinking is present in both Korean and Chinese societies and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reasoning method in traditional society in East Asia.

**Keywords:** Palace, Auspicious animals, Geumcheon-bridge, Youngje-bridge, Okcheon-bridge, Feng-Shui, The eight trigrams  
궁궐, 서수, 금천교, 영제교, 옥천교, 풍수, 팔괘방위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경영된 궁궐은 경복궁을 비롯해 모두 5개 궁궐이 남아 있다. 이 모든 궁궐은 궁문에 진입해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리를 하나 접하게 되는데 이를 ‘금천교’라고 한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하천을 ‘금천’이라고 한다. 이 하천은 동정(動靜)·음양(陰陽)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풍수론에 맞추기 위해 궁궐 안으로 끌어들이 인위적인 물길로서 궁궐의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금천교가 궁궐의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 것은 궁궐 건축에 풍수 문화가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금천이란 어휘가 세 가지 한자어로 표기되고 있다. ‘비단’을 의미하는 ‘금천(錦川)’, 오행 중 ‘금’을 나타내는 ‘금천(金川)’, ‘금지하다’의 뜻을 가진 ‘금천(禁川)’이다. 이러한 어휘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모두 궁궐의 주요 진입 노선 위에 있는 첫 번째 다리를 지칭하고 있으나 한자어가 다르게 쓰인 것은 각기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천이라는 어휘는 음(音)의 형식은 변화되지 않고 사용되었으나 그 속성은 다양한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선사회에서 관습이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lhsun617@daum.net

신앙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는 궁궐문화의 단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유기체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어휘가 생성되는 배경에는 특정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사상이나 문화 등 많은 것을 내포한다. 풍수 문화는 근대 이전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던 사고 체계이며 우리에게 매우 광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유방식의 하나로 궁궐 건축 전반에 습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언어학자 사피어는 “언어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란 문화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신앙의 총화를 말하는 것”<sup>1)</sup>이라고 하였다. 사용된 어휘 중 비단이나 금지의 의미는 사회적 통념으로 그 속에 어느 정도 의미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행의 의미로 쓰인 금천(金川)은 적용된 원리나 사회적 의식형태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궁궐 내에는 곳곳에 조각된 수많은 동물형상이나 독특한 문양의 장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금천교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서수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수의 배치 역시 당시 왕조의 시대상이나 통치이념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함유되어 조형된 것으로 풍수적 의미와 함께 당시 사회에서 만연했던 사상체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금천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건축 분야에서 복원과 관련된 보고서<sup>2)</sup>나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몇 편의 연구<sup>3)</sup>가 있을 뿐이고, 금천교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것은 보고서나 관련 연구의 내용 속에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궐에서 사용된 금천교와 관련된 어휘의 용례와 어원, 서수 등에 반영된 내용을 통해 궁궐의 공간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금천에 함유된 본질적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금천교는 국가 최고의 통치자가 머무는 궁궐 공간에 조성된 것으로 건축적 구성형태나 위치 등 궁궐 문화만의 독특한 요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범위도 궁궐 내부로 한정하였다.

논지의 전개를 위하여 2장 금천교의 용례에서는 조선시대 일반적 의미로 널리 이용된 금천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

고 궁궐 내수의 금천교에 대한 어휘가 일반 명사로 정착되기까지의 변화된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의 변화는 사회적 의식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당시의 주요 사상체계인 역(易)의 원리와 풍수가 바탕이 되어 변화되었음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3장의 금천교(金川橋)의 어원에서는 팔괘상과 오행(五行)이 금천에 적용된 원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궁궐에서 사용된 금천의 어원이 동양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음양오행이나 팔괘의 방위에 결합되어 풍수 문화와 습합되어지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장 금천교의 서수에서는 금천에 조영된 서수의 배치가 군주의 덕, 권위, 위엄, 신령함 등의 의미와 관련되면서, 물에 대한 의미가 갖는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궁궐문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천교의 서수 중 ‘귀면’ 서수에 대해 기존의 내용과 다른 형태의 ‘위(螭)’라는 서수를 제시하였다.

## 2. 금천교에 대한 용례

조선시대 ‘금천교’라는 어휘는 궁궐 내에서만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 일반 다리의 이름으로도 널리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도 ‘금천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금천교(錦川橋)의 80여 호가 불에 탔다.’<sup>4)</sup>는 내용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데 금천교 주변에 집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궁궐 내 금천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봉집』 침류대에 관한 내용을 보면 창덕궁의 서쪽으로도 궁궐과 가까운 곳에 금천교라 부르는 다리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sup>5)</sup>

정업원동(淨業院洞)이 창덕궁(昌德宮) 서쪽에 있어 숲과 골짜기가 깊고 그윽한데, 그 속에서 시냇물이 흘러 나와 한적하고 고즈넉한 풍치가 있었다. 내가 일찍이 실록국(實錄局)에서 근무할 적에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갔지만 직무에 얽매어서 한 번도 그 승경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해 통한스러울 뿐이었다. 하루는 내가 유생 회경(劉生希慶)을 따라 금천교(錦川橋) 위에 나갔다가 냇물이 한창 불어나 떨어진 붉은 꽃이 무수히 떠 내려 오는 모습을 보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무릉도원(武陵桃源)이 어찌하면 여기에 있는가봅니다. 내가 장차 이 냇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간다면 진(秦)나라 난리를 피해 온 사람들과 만나 한바탕 웃을 수 있을까요?” 하자, 유생(劉生)이 빙그레 웃으며 이르기를, “이 시내의 상류(上流)는 바로 내가 거쳐하는 곳입니다. 누대 하나가 그 터를 베고 서 있으며 복사꽃은 활짝 피었다가 비바람에게 질투를 받아 경박한 모습을 면치 못했습니다. 공이 만약 와서 구경한다면 청컨대 제가 동도주(東道主)가 되겠습니다.” 하여, 내가 또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대는 참으로 진나라 난리를 피해 무릉도원

1) 나상배(2003). 언어와 문화(하영삼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  
 2) 문화재청(2002). 『창덕궁 금천교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3) 권점수(2007). 한국 옛 다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 궁궐의 금천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조준형(1873). 고대 석조아치교양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창덕궁 금천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4) 『태조실록』, 태조 5년(1396) 2월 5일 기사.  
 5) 『지봉집』 제21권. 잡저., : 침류대기, 한국고전종합DB. 2020. 6.

에서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군요.” 하고는, 마침내 그의 뒤를 따라갔는데, 1백여 걸음을 채 가지 않아 우측으로 돌아서자 별세계가 펼쳐지니, 바로 유생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정황으로 보아 궁궐 내의 다리가 아닌 창덕궁 서쪽에서 흐르는 하천임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유생 유희경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 금천의 상류에는 침류대라는 누대가 있었고 어여쁜 복사나무 수십 그루가 좌우로 늘어서 있는 곳이다. 붉은 꽃비가 허공에 흩날리고 비단물결이 춤을 추는 듯한 곳이었으며 시냇물이 흐르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풍치가 있는 그야말로 비단 의미의 금천이라는 말에 어울릴만한 아름답게 그려지는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금천은 문인들의 시어(詩語)로도 자주 등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른 아침[早朝]

상촌선생

동봉에는 구름이 새벽부터 뭉게뭉게  
 동산 나무 천 겹이라 햇벌마져 희미하네  
 금천 다리 가의 길을 따라 걸었더니  
 흩날리는 눈송이가 옷 위로 올라붙네  
 東峯雲氣曉霏霏  
 苑樹千重日色微  
 步入錦川橋畔路  
 雪花飄盡上朝衣<sup>6)</sup>

뿐만 아니라 언어는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대체해서 부르는 경우도 발견된다. 사신으로 중국을 다녀온 연행록의 기록에서 이와 같은 예가 발견된다.

옥동교(玉蠓橋)가 대궐 안에 있다. 우리나라의 금천교(禁川橋)와 같은 것으로, 홍예 난간의 돌 빛깔이 매우 희며, 높고 넓고 흰히 트여 시원스럽다.<sup>7)</sup>

천안문(天安門)은 곧 단문 앞에 있는데 정남쪽이며, 문 앞에는 석교(石橋) 다섯이 있는데 곧 금천교(禁川橋)이다. 이상 각문은 자금성(紫禁城) 밖에 있는 것이다.<sup>8)</sup>

자금성 내에 흐르는 물 위로는 다섯 개의 다리가 있고 옥동교 등 다리의 이름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궁궐내수에서 쓰이는 금천교로 칭하고 기록을 남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 내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시대 궁궐 내수의 다리를 모두 금천교라는 보통명사<sup>9)</sup>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지어진 궁궐에는 다리의 이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모두 금천교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니다. 경복궁에서 다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태조 4년(1395)년 ‘수각(水閣)이 3간, 뜰 가운데에 석교(石橋)가 있으니 바로 물이 흐르는 곳이다.<sup>10)</sup>’라고 하여 경복궁의 영건(1395)과 함께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리는 오랫동안 이름이 존재하지 않다가 세종8년(1426) 다리가 만들어진지 3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리의 이름을 정하게 되면서 영제(永濟)<sup>11)</sup>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나 다리의 이름을 정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경복궁 내에서 흐르는 물이나 다리는 금천으로 인식되어 부르고 있었다. 그것은 태종 11년(1411)에 ‘경복궁(景福宮) 성 서쪽 모퉁이를 파고 명당(明堂) 물을 금천(禁川)으로 끌어들이라<sup>12)</sup>’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태종에 의해 경복궁에서 금천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고, 세종1년(1419)에도 ‘상왕과 함께 금천교(錦川橋)에 나가서 어사한 양 1,052마리를 인계받다<sup>13)</sup>’라고 하면서 경복궁에서 금천교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태종과 세종이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에 머물며 생활하던 시기이고, 영제교라는 다리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으로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자연스럽게 경복궁에서도 쓰이게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복궁의 다리는 영제교(永濟橋)이고, 창덕궁은 금천교, 창경궁은 옥천교(玉川橋)라고 각각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광해군시기 인경궁에서 다리 축성과 관련하여 금천교<sup>14)</sup>라는 명칭이 언급되어 있고, 경덕궁(경희궁)에서도 금천교의 돌난간 공사<sup>15)</sup>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덕수궁의 다리 이름도 금천교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기 이후에 지어진 궁궐에서는 모두 금천교로 일반화 되어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영제교라는 단어는 『영조실록』의 ‘영조 대왕 행장’의 내용에서 마지막 막으로 나타나고 고종 시기의 기록인 『경복궁영건일기』나 『북궐도형』<sup>16)</sup>에서는 금천교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종시기 경복궁이 새롭게 영건이 되면서 경복궁의 다리도 금천교로 변경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다리는 1916년 일제가 경복궁 안에 조선총독부를 건립하면서 해체되었고, 석재 일부가 수정전(修政殿) 앞에 있던 것을 1965년 근정전 동행각과 진춘문 사이로 옮겨 복원하였다가 2001년

6) 『상촌집』, 제20권, 시. 한국고전종합DB, 2020. 6.  
 7) 『연행록선집』, 심전고 제2권, 유관잡록, 한국고전종합DB, 2020. 6.  
 8) 『연행록선집』, 연행기사, 잡기(雜記), 한국고전종합DB, 2020. 6.

9) 역사건축기술연구소(2018). 『우리궁궐을 아는 사전』. 돌베개. p.66  
 10) 『태조실록』, 태조 4년(1395) 9월 29일 경신.  
 11) 『세종실록』 세종 8년(1426) 10월 26일 병술.  
 12) 『태종실록』 태종 11년(1411) 9월 5일 계해.  
 13)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8월 24일 병신.  
 14)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10년(1618) 윤4월 16일 갑술.  
 15)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10년(1618) 11월 23일 무신.  
 16) 『경복궁영건일기』에서는 錦川橋로, 『북궐도형』에는 禁川橋로 표기되어 있다.

경복궁 홍례문 일곽을 증건하면서 원래 자리로 이전 복원하였다.<sup>17)</sup>

금천이라는 어휘에 대한 이와 같은 배경은 모든 궁궐의 주요 축선 상에 놓인 다리를 금천교라고 불리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어휘가 만들어지고 그 용어를 30년 이상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생활 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복궁 다리 이름을 새롭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궁궐 내에 흐르는 물이 금천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새롭게 만든 단어보다는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조선왕조실록의 금천교의 용례(회차)

	錦川橋	金川橋	禁川橋
태종 (1)			● (1)
세종(1)	● (1)		
중종(2)	● (2)		
명종(1)	● (1)		
광해군정초본(4)		●(2)	● (2)
인조(2)			● (2)
효종(1)		● (1)	
숙종(5)			● (5)
영조(4)			● (4)
정조(5)			● (5)
순조 (5)			● (5)
헌종(2)			● (2)
철종(2)			● (2)
고종(10)			● (10)
총 46건	4	3	39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내수 금천교의 사용된 용례를 왕조를 나누어 살펴보면 우선, 태종시기에는 ‘금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후 세종부터 명종시기 까지는 ‘비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광해군에서 효종에 이르는 시기에는 ‘오행의 금’과 ‘금지’의 의미가 함께 쓰이다가 숙종 이후 고종에 이르기까지는 ‘금지’라는 하나의 의미로 사용 되었다. 즉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다양한 언어가 혼용되었으나 중기 이후로는 ‘금지’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중기 이후로 들어서면서 하나의 의미로 일관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 언어가 문화의 형태로 정착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의 쓰임이나 흐름에 대해 정확하게 시기를 구분하기보다는 사회의 통념이나 문화 속에서 좀 더 빈번히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번 만들어지고 쓰였던 어휘는 쉽게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금천교에 쓰인 경우와 같이 하나의 궁궐 내수를 가리키고 있지만 비단, 금지, 오행 등 어휘에 다양한 내

용을 함의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언어는 저자의 의도와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어 드러나기도 하고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변화 과정을 인류학자 타일러(E.B. Tylor, 1832-1917)는 “문화는 하나의 복잡한 종합체로서, 지식과 신앙·예술·도덕·법률·습속을 비롯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획득한 개인의 모든 가능한 관습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8)</sup>고 했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언어와 문화의 관계가 밀접<sup>19)</sup>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궐의 다리는 단순히 물길을 건너가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례가 더 중요한 의미로 작용하였다. 즉, 금천교에서 행해졌던 하나하나의 행위가 서서히 궁궐의 문화로 정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 금천교에서 행해졌던 의식은 사신접견이나 진송, 입지관원 등을 맞이하는 행태들을 볼 수 있지만 중기 이후는 장형이나 국문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다가 말기에 가서는 거의 대부분 상(喪)에 대한 거애<sup>20)</sup>나 망곡례<sup>21)</sup>를 행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영제교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금후로는 광화문(光化門)에 부녀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영제교(永濟橋) 뜰과 근정전(勤政殿)의 뜰에도 또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sup>22)</sup>고 하였던 내용과 세종이 현릉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왕을 인도하여 연주되던 풍악이 영제교에 이르러 그쳤다.’<sup>23)</sup>는 기사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용례는 모두 금지(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영제교 즉 금천교가 기준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제교는 신분과 지위를 공간으로 구획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처음으로 근정문(勤政門)에 나아가 조회를 받으니, 2품 이상은 영제교(永濟橋) 안에 서게 하고, 3품 이상은 영제교 밖에 서게 하였다.<sup>24)</sup>

세종시기 경복궁에서 조회를 받는 의식에서 영제교를 기준으로 2품과 3품의 위치가 정해졌던 것을 볼 수 있다. 유학을 기본 바탕으로 세워진 조선 전기의 예제의 기준은 조선 오백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제도는 군신·남녀·상하 등 신분계급의식

17) 율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p.1437

18) E.B. Tylor(1889), 『제도의 발전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On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 J.A.I. XVIII, pp.245-272

19) 나상배(2003). 언어와 문화(하영삼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2

20) 상례에서 거애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고 나서 상제가 머리를 풀고 슬피 울어 초상난 것을 알리는 것

21) 망곡례는 직접 빈소와 능묘에 가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슬피 곡을 하며 지냈던 의례이다.

22) 『세종실록』 세종 13년(1431) 12월 10일 신축.

23)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4월 23일 병오.

24) 『세종실록』 세종 23년(1441) 1월 11일 기유.

에 바탕을 두었고 이에 따른 수직적 계층질서를 철저히 따르던 사회이었다. 이렇게 설정된 예제의 기준은 조회의식뿐만 아니라 세자의 조참의, 정지급 성절 망궐 행례의<sup>25)</sup>, 황태자 친추절 망궁 행례의<sup>26)</sup>, 전향의<sup>27)</sup>, 정지 백관 조하의<sup>28)</sup>, 삭망 백관 조의<sup>29)</sup>, 하상서의<sup>30)</sup>, 오일 조참의<sup>31)</sup>, 납채<sup>32)</sup>, 책비의<sup>33)</sup>, 책왕세자의<sup>34)</sup>, 책왕세자빈의<sup>35)</sup>, 왕세자납빈의 납채<sup>36)</sup>, 임헌초계<sup>37)</sup>, 교서반강의<sup>38)</sup>, 문과전시의(文科殿試儀),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 수인국서폐의<sup>39)</sup> 등 거의 대부분의 의식에서 행해졌다. 영제교를 기준으로 행해졌던 의식이 2급 이하의 관료들에게는 범하여 넘을 수 없는 금선(禁線)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반복되는 의식에서 서서히 그 의미가 정착되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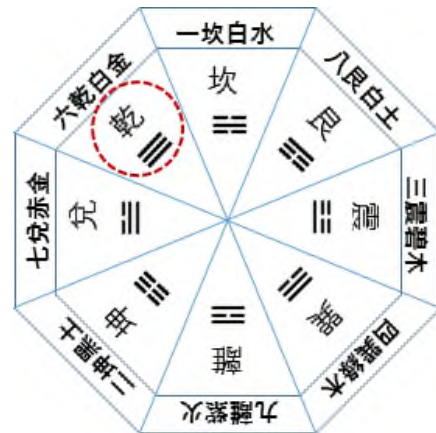
음양을 따르는 자(者:王), 그 덕(德)은 천지와 일체가 되며 그 명(明:밝음)은 일월(日月)과 나란히 하고, 그 정(精)은 귀신도 다스린다.<sup>40)</sup>고 하였다. 이렇게 영제교가 신분과 계급을 나누고 산자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장소로서 기준이 되었던 것에는 역(易)을 기본사상으로 하는 풍수의 원리가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음으로 일컫는 산의 형상과 양으로 끌어들이는 물의 의미는 강(剛)과 유(柔), 안과 밖, 신분을 나누고, 이승과 저승으로 구분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금천교(金川橋)가 기준이 되면서 궁궐 문화에서 금지의 의미가 부각되어 받아 들여 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언어라는 것은 다양한 사회조직의 부산물로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시대를 반영함은 물론 사회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형태<sup>41)</sup>의 하나로 보아야만 한다.

### 3. 금천교(金川橋)의 어원

금천(金川)은 창덕궁이 영건되면서 풍수 방위관과 연관되어 만들어진 용어이다. 창덕궁 영건시 풍수의 논리에 맞추기 위해 고의로 궁궐 안으로 끌어들이는 물길로 팔괘 방위

에 배정된 오행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풍수에서 산은 움직이지 않고 정(停)하기 때문에 음이고, 물은 움직여 동(動)하므로 양이다. 음과 양이 서로 교배했을 때에만 혈을 결지할 수 있고 산과 물이 서로 끌어안아주듯 감싸주어야 길한 형상이다.<sup>42)</sup> 북악의 산자락인 응봉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황단 [대보단: 신선원전(현)] 을 에워싼 후 창덕궁의 수각을 통해 안으로 들어와 창덕궁의 금천이 되었다. 직선으로 내려오던 금천은 둔화문 밖으로 나와 창덕궁을 둥글게 환포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후 홍인지문의 남쪽인 청계천의 오간수문으로 흘러나간다.<sup>43)</sup> 산의 형세를 이용해 자리를 잡은 궁궐은 음양의 조화를 위해 양(陽)이 되는 금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팔괘방위에 따른 수·색·오행의 배정

창덕궁의 중심에서 물이 들어오는 신선원전의 방향은 팔괘방위로 건방(乾方:☰)에 해당한다. 이 방위에 해당하는 오행은 금(金)이다. 금의 방위에서 들어오는 물(川)이라 하여 금천(金川)이라는 용어가 만들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한시대에 흥기한 상수역학은 태양력에서 비롯된 절기변화를 계절의 소장관계로 설명한다든지, 천원지방적인 천체구조론 아래 천지의 관계 질서를 정립하려 하였다. 또한 음양사상을 일월의 운행과 관련짓거나 자연의 오행사상을 하늘의 오행성과 관련짓는 등 천문역학적인 관점아래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질서를 동시에 설명해 내려 하였다.<sup>44)</sup> 조선시대 풍수학 과시 과목의 하나였던 『동림조담』에서도 후천팔괘와 숫자를 중심으로 북두구성의 명칭과 지리에서의 응용을 논하였고, 북두구성 각각의 자리에 따른 천괘와 지괘의 방위와 그에 따른 산수의 배속과 인사의 길흉을 열거하였다. “일갑백수(一坎白水) → 이곤흑토(二坤黑土) → 삼진벽목(三震碧木) → 사손녹목(四巽綠木) → 오중황토(五中黃土) → 육건백금(六乾白金) → 칠태적금(七兌赤金) → 팔간백토

25) 정월·동지 및 성절(聖節)에 황제의 궁궐을 바라보고 행례(行禮)하는 의식.

26) 황태자의 친추절에 궁전을 바라보고 행례(行禮)하는 의식.

27) 향(香)을 전하는 의식.

28) 정월과 동지에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

29) 삭망에 백관이 조회하는 의식.

30) 상서를 하례하는 의식

31) 매달 초5일, 11일, 21일, 25일의 조참 의식(朝參儀式).

32) 왕비의 집에서 납채를 받는 의식.

33)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34) 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35) 왕세자빈을 책봉하는 의식.

36) 왕세자빈의 집에서 납채(納采)를 받는 의식.

37) 임금이 평대(平臺)에 나왔어 초계(醜戒)하는 의식.

38) 교서(敎書)를 반강(頒降)하는 의식.

39) 인국(隣國)의 서폐(書幣)를 받는 의식.

40) 劉安編著·安吉煥編譯, 『淮南子 上』, 『본경훈』, 명문당, 2013, p.362

41) 나상배(2003). 언어와 문화(하영삼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169

42) 정경연(2003). 『정통풍수지리』. 서울:평단문화사. p.541

43) 문화재청(2005). 『동궐도읽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p.26

44) 김일권(2012).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p.51

(八良白土) → 구이자화(九離紫火)<sup>45)</sup> 등은 「재혈편」, ‘혈백(穴白)의 범칙’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처럼 낙서를 이용한 팔괘 방위에는 성수, 오행, 색깔 등 많은 내용을 적용시키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기에 이른다.



<그림 2> 창덕궁의 금천과 창경궁의 옥류천

조선사회는 방위를 가리키는 이러한 ‘金川’의 의미가 사회적 의식형태와 맞아 떨어져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단’과 ‘내(물)’라는 뜻이 어우러져 ‘비단물결’이라는 ‘錦川’의 아름다운 어휘가 함께 사용되었다. 예로부터 비단은 귀하고 좋은 옷감으로 알려져서 그것으로 만든 물건을 모두 귀하게 여겼다. 특히 비단으로 된 옷감이 둘둘 말려져 있다가 길게 펼쳐지면 마치 그 모양이 물이 흘러가는 모습과도 같아서 궁궐 내에 흐르는 물의 형상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강물로 그려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역(易)의 원리인 음과 양을 구분하고자 하는 의식 형태가 금선의 의미로 나타내고 경계 짓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창경궁의 옥류천(玉流川)도 창덕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풍수 방위관을 이용해 용어가 만들어졌다. 물길은 산의 형세를 기반으로 한다. 동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산 응봉의 능선은 경복궁의 청룡자락에 해당 하는 산맥이다. 응봉에서 내려오는 주맥(간룡)은 능허정이 있는 곳에서 봉우리(현무

봉)를 만들었다. 간룡은 다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리면서 종묘로 이어졌고, 분맥을 거둬하며 내려가는 능선을 이용해 두 곳에 궁궐이 조성되었다. 서쪽으로 뻗어 내린 지룡을 이용해 창덕궁, 동쪽으로 뻗어 내린 지룡을 이용해서는 창경궁이 들어서 있다. 산의 형세를 면(面)과 배(背)로 나누기도 하는데 면으로는 창덕궁이 자리했고 배로는 창경궁이 들어섰다. 면의 경사는 완만하게 내려오는 반면 배는 급경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능선은 두 궁궐의 수계와도 깊이 관련된다. 후원 영역의 능선에서 만들어진 간룡과 간룡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곡(谷)을 만드는데 곡을 따라 물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경궁의 물은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 춘당지에 모였다가 남쪽으로 흘러 창경궁의 정문이 있는 홍화문과 명정문 사이에 놓인 옥천교를 지나 남쪽으로 흘러간다. 창경궁을 빠져 나온 금천은 종묘 앞에서 동쪽방면으로 흘러 옥류천<sup>46)</sup>과 합수하여 청계천으로 흘러간다.

창경궁 옥류천의 발원은 춘당지에 모인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춘당지는 동쪽에 만들어진 연지라는 뜻으로 창덕궁의 방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덕궁의 중심인 대조전에 팔괘 방위를 적용하면 춘당지의 방향은 간방(艮方:≡)에 해당한다. 이 방위에 해당하는 오행은 토(土)이고 적용되는 색은 백색이므로 팔간(八艮)방에 백토(白土)를 배정하였다. 흙이 백색이 되었다는 것은 옥과 같이 단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색의 돌을 옥(玉)이라고도 한다. 『관자』 「수지(水地)」편에서는 물의 정미함이 옥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옥의 의미를 아홉 가지의 덕(仁·知·義·行·潔·勇·精·容·辭)으로 보배와 상서로움으로 해석하고 있다.<sup>47)</sup> 창덕궁의 경우에서 금천을 비단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서 어휘가 만들어 졌듯이 창경궁의 물을 백토와 단단한 백옥에 비유되어 옥류천(玉流川)·옥천교(玉川橋)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궁궐인 자금성의 경우도 우리 궁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궁궐의 좌향이 자오의 정남향으로 팔괘로는 감좌리향(坎坐離向)이 된다. 자금성의 수계 또한 풍수론에 맞추어 만든 물길로 금수하(金水河)라고 한다. 금수하는 건방(乾方:≡) 북서쪽으로부터 황성으로 유입 되어, 궁성 손방(巽方:≡) 동남쪽으로 흘러 나가는 강물로 내금수하와 외금수하로 나눈다. 내금수하는 신무문(神武門) 서쪽에 연하여

46) 『궁궐지(宮闕志)』. 한국학연구소.

47) 『관자』 (김필수 · 고대혁 · 장승구 · 신창호 공역). 수지(水地). 경기도: 소나무, p.536: 무릇 옥이 귀한 것은 아홉가지 덕이 있기 때문이다. 대저 옥은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빛나니, 어질다. 맑고 깨끗한 무늬결이 있으니 지혜롭다. 굳세면서 휘지 않으니 의롭다. 모가 나 있으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니, 품위 있고 절개가 깊다. 항상 깨끗하면서 더럽지 않으니, 순결하다. 끊어져도 굽히지 않으니 용기 있다. 옥의 티와 광택이 모두 드러나니, 정성스럽다. 영화와 광택이 융화하여 일체가 되나 서로를 침해하지 않으니 관용이다. 두드리면 그 소리가 맑은 것이 한결같이 멀리까지 들리며, 순수하여 잡된 소리가 섞여 있지 않으니, 조리가 있다.

45) 도간 · 범월봉(2015). 捉脈賦 · 洞林照膽 (김두규 역주). 서울: 비봉출판사, p.216



자금성 북서쪽에서 유입되어 남쪽으로 흘러들며, 태화문 앞까지 굽이굽이 동쪽으로 굽이쳐, 동화문에 이르러 좌문 안쪽에서 남쪽 밖으로 꺾어 자금성 동남쪽을 따라 흘러나가는 강물이다. 외금수하는 중해에서 사직단 남서쪽으로 흘러들어와 만나, 천안문 바깥의 금수교를 경유해, 동쪽으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경 내성과 자연스럽게 동남쪽으로 흘러나간다.<sup>48)</sup> 건방의 오행은 금(金)이므로 금의 방향에서 들어오는 강물(水河)이라 하여 자금성에 흐르는 물의 이름이 금수하(金水河)<sup>49)</sup>가 된 것이다.



<그림 3> 자금성의 수계 금수하(金水河)  
(출처: 자금성풍수)

자금성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수의 형세를 두고 침산금수(枕山襟水)라고 표현 한다. 베개침(枕)과 옷깃금(襟)자를 이용해 만들어진 어휘로 마치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곳에 옷깃으로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는 자금성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만들어진 어휘의 의미에 평안(平安)을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듯하다.

## 4. 금천교의 서수

### 4.1 서수의 현황

조선시대 건축된 우리 궁궐 내에는 건축물을 장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석조 조형물이 곳곳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형물은 형태나 위치에 이르기까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이 없다. 5개 궁궐 중 서수가 가장 많이 장식된 곳이 경복궁의 근정전이다. 이호선<sup>50)</sup>은 근정전에 배치된 서

수에 삼원·사신·12지신·28수·용생구자 등 천문과 관련하여 하늘과 인간의 질서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상응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고대 동양의 우주론적 사상체계가 시각적 결과물로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체계는 진한시기에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후한시대로 가면서 더욱 확산 되었으며 수당시기에 이르러는 이미 만연하였던 논리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51)</sup>

고대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원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당시 신분사회의 지배 계층을 이루던 위정자들의 내재된 중심사상이 이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체계로 적립된 궁궐 내 서수의 배치는 단지 근정전뿐만 아니라 궁궐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놓인 모든 형상에 같은 시대적 배경이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경복궁의 금천교

금천교 다리의 구성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나 다리 형식에 일정한 법칙을 적용해 조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천교 다리는 모두 3칸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앙에는 어도를 두었고 좌우 도로는 중앙 도로와 약간의 높이로 차이를 두었다. 다리 가장자리에는 좌·우로 각각 6개의 돌기둥이 서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한 장으로 만들어진 판석이 놓였다. 판석은 하엽동자기둥 모양<sup>52)</sup>의 부조<sup>53)</sup>로 장식되었는데 중간 하엽동자기둥 양쪽으로 꽃 모양으로 두 개의 구멍을 내어 넓은 판석에 바람 길을 내었다. 가장자리의 난간이 넓은 판석으로 된 곳은 창덕궁·창경궁·경희궁이다. 이와 다른 난간 형태를 보이는 곳은 경복궁과 덕수궁으로 연화 난간 기둥위에 8각형의 긴 돌을 얹어 놓았다. 판석을 연결한 여섯 개의 돌 기둥 중 가장자리에 놓인 기둥을 엄지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기둥 위에는 동물상이 놓였고, 중간에 놓인 네 개의 기둥에는 연꽃봉오리가 장식되었으며 그 기둥 밑으로 용두(龍頭)명<sup>54)</sup>이 놓였다. 다리 아랫부분으로 무지개 모양으로 된 두 개의 아치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홍예(虹蜺)라고 한다.

48) 万依(1996). 『故宫辭典』. 文匯出版社. 2쪽 : 由乾(西北)位流入皇城, 宮城由巽(東南)位流出的河. 分爲內金水河和外金水河. 內金水河是由神武門進西紫禁城西北方流入, 向南, 屈曲東折經太和門前, 至東華門內座門外南折從紫禁城東南方流出的河. 外金水河是由中海流入社稷壇西南隅, 流經天安門外金水橋, 向東注御河, 自北京內城東南方流出的河.

49) 王子林(2005). 『紫禁城風水』, 紫禁城出版社. p.128

50) 이호선(2020).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석난간에 설치된 서수 조각물의 내용 및 상징적 의미 연구. 건축역사연구논문집. 129호.

51) 김일권(2012).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서울.

52) 난간두껍대를 받치는 연잎 모양의 짧은 기둥

53) 평면상에 형상을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조형기법

54) 동바릿돌 또는 동바리 위에 얹어 마루청을 받치는 나무

<표 2> 조선 궁궐 금천교의 서수와 난간

	경복궁 영제교	창덕궁 금천교	창경궁 육천교	경희궁 금천교	덕수궁 금천교
엄지기둥					
용두명예	•		•		•
위와 거 북(入水)					
위와 용 (出水)					
자라		•	•	•	•
천록		•	•	•	•
다리난간					

두 개의 흉예가 만들어지는 삼각지점에 양각된 상(像)이 놓였는데 통상 이를 가리켜 귀면(鬼面)이라고 한다. 귀신이나 도깨비의 상(像)이 마치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귀면은 전통 건축물의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불교 건축의 문양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불교 건축물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고, 발굴 출토된 고대 건축의 기와 문양으로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sup>55)</sup>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양을 일괄되게 귀면이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형상이 체(體)는 없고 면(面)만 있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그 문양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귀면이라는 말이 처음 시작된 것은 출토된 기와의 문양을 귀면이라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70년대 이루어진 이와 같은 해석은 건축물 전체를 보지 않고 단지 문양만 국한해 해석되었기 때문



<그림 5> 귀면기와  
(출처: 한국 고고학 사전)

이라고 볼 수 있다. 김우석의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귀면문(鬼面紋)의 조형의 소재처를 밝혀본다면, 그것은 아득히 B.C. 1300년까지 소급하는 고대 중국 은, 주시대의 청동 제기 - 격(鬲), 가(罍), 고(觚), 작(爵) 등에 주조되어 있는 도철문(饗饗紋)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sup>56)</sup>고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귀면문의 소재처는 도철문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철은 귀신의 형상이 아니라 용생구자중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용생구자는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물로 용이 낳았다는 용의 아홉 자식을 가리킨다. 그중 『송암외집』의 용생구자 중 오자(五子) 도철은 음식을 좋아해서 술의 뚜껑이나 술잔 등의 손잡이에 그 모양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육자(六子)인 공복(蚣蝮)은 물을 좋아해 다리 엄지기둥에 놓이는 것으로 각각 그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 영제교 엄지기둥에 놓인 형상은 몸에 비늘이 있고 유연해서 꼬리를 둘둘 말아서(肉環) 먹이를 잡는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sup>57)</sup> 용생구자 공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경복궁 근정전에 놓인 동방칠수 중 각수(角宿)와 결합된 교룡과도 닮아있다. 이와 같이 용생구자는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각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놓이는 위치에 따라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출토되었던 귀면기와가 놓인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 귀마루나 내림마루 등의 돌출된 끝 부분에 놓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 지붕 끝 만나는 돌출된 부분, 길게 늘어진 형상을 상상의 동물 용(龍)의 몸에 비유해서 용마루라고 부르게 된 것과 끝부분에 놓이는 형상이 용두, 치미, 치두, 이문 등을 용생구자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이유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풍수론에서 길게 늘어져 있는 산 능선이 용(龍)의 몸에 비유되어 용맥(龍脈), 또는 용(龍)이라고 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얼굴(面)은 언제나 체(體)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이곳에 있을 경우 귀마루나 내림마루의 돌출부분은 몸체가 되고 가장자리에 놓인 기와는 면(面)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형상을 얼굴(面)만으로도만 해석 되어야 할게 아니라 신체의 전부와 역할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易)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교체계에서 귀신은 귀(鬼)와 신(神)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중 귀(鬼)는 신(神)의 의미와 다르게 음(陰)적인 존재로 꺼리고 기피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sup>58)</sup> 건축물의 지붕 기와

56) 김우석(1978). 한국적 귀면문양의 조형성 및 시대적변천에 관한 분석고찰. 시대론문집. 제5집. 자연과학편. pp.121-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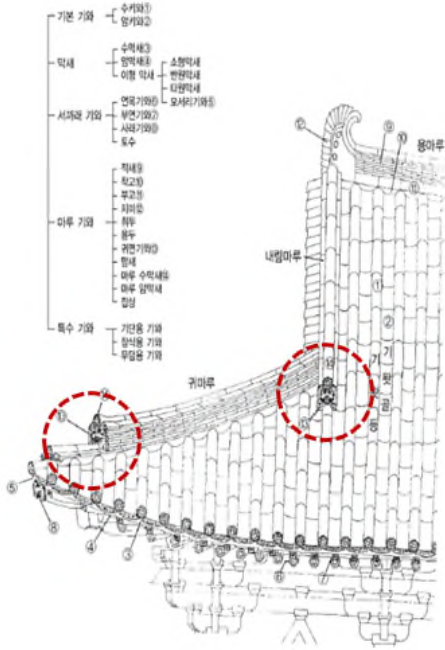
57) 이호선(2020).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석난간에 설치된 서수 조각물의 내용 및 상징적 의미 연구. 건축역사학회논문집. 129호. p.83

58) 박용조(2003). 『중국 사상에서의 鬼神에 대한 이해』. 신앙과 삶. 박준영(2012). 중국 선진시기 귀신관념의 형성과 전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박성규(2004). 주자철학에서의 귀신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황인선(2002). 周易에 있어서의 神의 意味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이호선(2016). 命理學에 적용된 神의 意味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55) 국립문화재연구소유적조사연구실(2019). 『한국고고학사전 上』. 문화재청. pp.133-134



에 놓였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진다. 비록 그 형상이 귀신과 비슷하다고 하여 귀면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물의 지붕 위 기와에서도 해석되고 물과 연관된 다리의 형상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쉽게 설득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형상에 대한 의미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귀면기와의 사용처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학사전)

## 4.2 서수의 분석

궁궐 금천교의 다리 형식이나 다리에 놓인 서수, 궁궐에 끌어들이는 물의 의미 등은 『관자』 「수지」편에 근거하여 건축적 해석이 더해져 다리 조형물의 구성 형태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물속에 깊이 잠길 수 있어서 없앨 수 없는 것은, 거북(龜)과 용(龍)이다. 거북은 물에 살지만 불<sup>59)</sup>에서 그 조짐을 나타내어, 만물에 앞서 화복을 증명한다. 용은 물에 살지만 오색이 영롱한 구름에 힘입어 다니기 때문에 신령스럽다. 작아지고자하면 조그만 누에가 되고, 커지고자 하면 천하를 감싸고, 위로 오르고자 하면 구름보다 높고, 낮아 지고자하면 깊은 못에 남는다. 어느 때나 변하고, 어느 곳에서나 몸을 바꾸기 때문에 신령스럽다고 말한다. 거북과 용은 물속에 깊이 잠길 수 있어서 없앨 수 없다. ... 개울의 물이 마른지 오래된 곳에서는 위(虺)<sup>60)</sup>가 생긴다. 위란 머리는 하나면서 몸

은 두 갈래인데, 그 모습이 뱀과 같고, 그 길이가 팔척이다. 그 이름을 부르면 물고기나 자라 따위를 잡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개울의 물이 마른 곳의 정령이다. ... 어떤 때는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모습을 감추기도 하는 것이 위이다.<sup>61)</sup>

거북과 용은 깊은 물속에 잠겨 있어 감추기도 하고 세상에 몸을 드러내어 나타내기도 하여 모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 장수와 신령함의 상징이다. 다리에 놓인 서수가 거북(龜), 용(龍), 교룡(용생구자), 자라(鰲)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의 정령인 위(虺)의 몸체에서 만들어진 형상으로 건축적으로 홍예라는 형태와 용어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창덕궁 금천교

궁궐 다리에 놓인 위(虺)는 물이 들어오는 곳과 다리를 통과해 빠져 나가는 2곳에서 볼 수 있는데 상(像)이 모두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위(虺)의 앞으로 네모반듯하게 놓인 돌이 있고 그 위로 거북과 용(교룡)의 전신상이 각각 놓여 있다. 경복궁 영제교에서만 볼 수 있는 형상으로는 자라(鰲)와 천록(天祿)이 있다. 그중 천록은 영조시기 유득공(柳得恭)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정리한 여행기에 그 내용을 전하여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서수이다. “경복궁 옛 궁궐에 들어가니 궁 남문 안쪽에 다리가 있다. 다리 동쪽에는 석수 천록 두 마리가 있고, 서쪽에는 한 마리가 있는데 비늘과 갈기가 꿈틀거림이 자연스럽게 양각되었다. 남별궁 뒤뜰에 등에 구멍 난 천록이 있는데 이와 몹시 닮았다. 필시 서쪽 다리에서 하나가 옮겨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sup>62)</sup>고 전

60) 위(虺)라는 한자의 사전적 의미는 '벌레 이름'으로 찾을 수 있다. 이 글자에 대한 중국의 발음은 “guǐ”로 읽혀서인지 그동안의 한글의 표기가 “귀”자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관자』에서도 귀자로 쓰고 虺자로 표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리의 형상에 맞는 글자는 벌레의 이름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위(虺)로 해석하였다. 이곳에 놓인 형상이 귀신이나 도깨비 같이 무섭게 생겨 귀신(鬼)의 의미로 확대되어 귀면(鬼面)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다리에 놓인 형상은 위(虺)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1) 관중(2016). 관자, 김필수·고대혁·장승규·신창호 공역, 수지(水地). 경기도: 소나무, pp538-540: 伏聞能存而能亡者, 蒼龜與龍是也. 龜生於水發之於火 於是為萬物先 為禍福正 龍生於水 被五色而遊 故神 欲小則化為蠶蟄 欲大則藏於天下 欲尚則凌於雲氣 欲下則入於深泉 變化無日, 上下無時 謂之神 龜與龍 伏聞能存而能亡者也... 涸川之精者, 生虺, 虺者, 一頭而兩身, 其形若蛇, 其長八尺. 以其名呼之, 可使取魚鰲. 此涸川水之精也... 或世見, 惑世不見者, 虺.

59) 거북껍질로 치는 점(龜占)은 거북껍질을 불에 구워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길흉을 점친다. 주역(周易)에 거북점과 시초점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거북점이 영험(靈驗)하다고 한다.

한다. 이후 『경복궁영건일기』에서 “남별궁에 있던 패하석을 가져와서 다시 금천교 서쪽 우변 석축 위의 본래 자리에 두었다.”<sup>63)</sup>고 하여 고종시기 경복궁이 영건되면서 자리를 잃었던 친록이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다리는 두 개의 홍예로 구성되어 있고, 덕수궁을 제외한 다른 4곳의 다리 엄지기둥에는 동물의 형상이 놓였다. 용두멍에가 있는 곳은 창덕궁과 경희궁에서이다. 멩에는 다리의 크기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크기가 작은 창경궁에서는 멩에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虺)가 보이는 곳은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이다. 위(虺)앞에 놓인 사각의 면석 위에 거북과 용상이 원래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창덕궁의 금천교뿐이다. 조형물은 없고 사각의 면석만 남아 있는 곳은 창경궁과 경희궁에서도 볼 수 있는데 창경궁은 양쪽에 남아 있으나 경희궁은 한쪽에만 남아 있다. 남아있는 사각의 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위에 어떤 조형물이 놓여 있었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없어진 곳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큰 장마 등에 의해 휩쓸려 유실되었거나 도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하고 복사(覆沙)가 쌓여 있는 창경궁 다리의 모습이 『조선고적도보』에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거북과 용상이 놓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새로 지어진 경복궁<sup>64)</sup>과 덕수궁에서는 위상도 나타나있지 않고, 위 앞에 놓인 사각석의 흔적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다리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서수 등은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화가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림 8> 창경궁의 금천교 (출처: 조선고적도보 십(+))

위(虺)와 비슷한 형상은 『산해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효수가 이 산에서 나와 서북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여기에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뱀이 있는데 비유(肥遺)라고

62) 『冷齋集』, 卷之十五, 雜著, <春城遊記>: 又翌日入景福古宮. 宮之南門內有橋. 橋東有石天祿二. 橋西有一鱗鱉. 蜿然良刻也. 南別宮後庭有穿背天祿. 與此酷肖. 必移橋西之一而無掌故可證也. 한국고전종합DB. 2020.6.

63) 서울역사편찬원(2019), 국역경복궁영건일기1, 서울

64) 위의 주석 (8)번의 내용에서 “2001년 경복궁 흥례문 일곽을 중건하면서 원래 자리로 이전 복원하였다”고 하였을 때 고종시기에 지어졌던 금천교의 원형상태가 복원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다.

부르며 이것이 나타나면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든다.”<sup>65)</sup>고 하였다. 위(虺)의 머리는 하나에 몸이 두 갈래로 나누어졌는데 그 모양이 뱀 같기도 하고 무지개 모양 같기도 한 것으로 사람에 따라 형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뱀의 형상으로 그려지는 것보다 건축 용어에서 쓰인 두 개의 무지개로 그려지는 홍예라는 아름다운 어휘가 궁궐의 다리와 사뭇 어울린다. 『산해경』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위(虺)는 물의 정령으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에 대한 의미는 물의 양에 따라 그의 모습이 달리 보여 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면 그 모습이 빗물에 의해 감춰질 수 있고 물이 없으면 그 형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9> 비유(肥遺) (출처: 산해경)

위(虺)는 가뭄이 물이 없을 때에만 나타나는 물의 정령이다. 영계교 바닥에 설치된 자라는 물의 정령과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뭄이 들어 물이 없을 때에만 바닥이 드러나 자라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바닥에 ‘그 이름을 부르면 물고기나 자라 따위를 잡아오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물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나 자라를 놓았다. 즉 물의 정령인 위(虺)가 물고기나 자라를 부를 수 있도록 물을 끌어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궁궐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서수들의 배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궁궐 금천교에 나타난 서수는 모두 『관자』 「수지론」에 나타난 동물형상으로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멩에를 용두로 만들었고, 엄지기둥 위에는 교룡 또는 용생구자로 해석될 수 있는 용과에 속하는 동물을 배속하였으며 물의 정령 위와 자라 등을 배치함으로써 궁궐 내의 물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관자』 「형세론」에서도 군주의 권위는 교룡을 얻어야 하는

65) 『산해경』. 장수철 역. (2015). 북산경. 사단법인올재, p.104

것<sup>66)</sup>이라고 하였다. 교룡은 동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동물로 신령함은 물을 얻어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룡을 얻은 군주는 천하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물을 얻어야 신령한 위엄이 서고, 백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물에 대한 의미를 정치나 인사(人事)와도 연결하여 생각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상은 『국조보감』의 글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선사회의 사상체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믿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들이 믿고 사는 것은 하늘인데 요즘 연거푸 바람만 쌀쌀하고 비 올 생각은 까마득하니 이는 바로 내가 실덕을 한 소치이지 백성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내 밤낮으로 속이 타고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예관으로 하여금 좋은 날을 잡아 정성껏 비를 빌게 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대궐 안 구석구석과 금천교(禁川橋)의 더러운 물건들을 빨리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라.”<sup>67)</sup>고 하였다.

땅과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세상 만물의 본질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sup>68)</sup>이라고 하였다. 물이 깨끗하면 백성의 마음도 맑고, 물이 맑으면 역시 백성의 마음도 맑은 것이라고 보았다. 군주는 천하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덕(德)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궁궐 내수로 자리하였다. 더불어 금천교에 배치된 서수들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인 물의 정령으로서 물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수호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배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역(易)의 원리와 풍수 문화를 수용하였던 조선 사회는 궁궐에 다리 하나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함축된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천교의 용례에서는 궁궐 내수 금천교가 보통명사로 인식되는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경복궁의 다리는 영제교(永濟橋)이고, 창덕궁은 금천교(錦川, 金川, 禁川橋), 창경궁의 다리는 옥천교(玉川橋)라는 각각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궁궐 다리의 이름은 금천교 하나로 정착되어 불리게 되었다. 창덕궁에서 시작된 금천이라는 말은 궁궐의 내수 모두를 금천으로 칭(稱)하게 된 것이다. 이렇

게 부르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이 뒤따른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경복궁 다리의 이름이 금천교보다 늦게 이름지어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태종과 세종이 창덕궁에서 생활하던 시기에 만들어 졌으며 창덕궁에서 사용하던 익숙한 어휘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창덕궁으로 들어오는 물의 방향과 경복궁에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모두 팔괘의 건방(乾方:☰) 북서쪽에서 들어오고 있어 경복궁의 수계를 금천이라고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궁과 이궁 모두에서 불리게 되면서 금천은 하나의 보통명사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변화 양상은 당시 사회에 만연한 사상체제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적 의식형태의 하나로 해석된다. 금천교가 기준이 되었던 문화의 형태는 역(易)의 원리와 풍수론이 기준이 되어, 안과 밖을 구분하고, 사회적 신분을 나누고,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등 예제 의식을 통해 구현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궁궐은 물길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하나의 음산양수(陰山陽水)의 공간 형식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천교(金川橋)의 금천이란 어휘의 시작은 창덕궁에 적용된 팔괘 방위관이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덕궁에서 물이 들어오는 건방(乾方:☰)에 해당하는 오행은 금(金)이므로 금의 방위에서 들어오는 물이라고 하여 금천(金川)과 금천교(金川橋)라는 어휘가 만들어졌다. 창경궁의 경우에서도 팔괘의 방위관이 적용되어 어휘가 만들어졌다. 들어오는 물의 방향이 북동쪽이므로 간방(艮方:☶)에서 시작된다. 간방에 적용된 색은 백색이고, 오행은 토(土)에 해당하여 백토(白土), 백옥(白玉)과 연관시켜 옥류천(玉流川)이라는 어원이 만들어 졌고, 그 위에 놓인 다리의 이름이 옥천교가 되었다. 중국 자금성의 수계도 우리 궁궐 체계와 맥락을 같이한다. 건축물방향은 남향을 하고 있으며 물의 방향은 건방(乾方:☰)으로 들어와 손방(巽方:☴)으로 흘러나간다. 오행으로 금(金)방에서 들어오는 강물(河)이라 하여 금수하(金水河)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어휘의 생성 변화 과정에서 민족의 문화가 드러나는 것으로 금천·옥천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궁궐에 풍수 문화가 깊숙이 관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당시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주요한 사유방식이었다.

금천교에서 볼 수 있는 서수의 구성은 모두 물과 관련된 다. 거북, 용, 교룡(용생구자), 자라, 위(鱉) 등의 동물로 구성되었으며 신령함이나 장수의 의미로 상징된다. 그중 새롭게 소개되는 위(鱉)라는 동물이 있는데 위의 사전적 의미는 ‘벌레이름 위’이다. 머리는 하나에 몸이 두 갈래로 나누어 지는데 그 모양이 마치 궁궐 금천교의 홍예와 닮아 있다. 『관자』 「수지론」에 근거한 형상과 궁궐 금천교의 다리 형식,

66) 관중(2016). 관자(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공역). 형세해. 경기도: 소나무. p.731

67) 『국조보감』 제41권 숙종1년(1675), 4월. 한국고전종합DB. (2020.06)

68) 관중(2016). 관자(김필수·고대혁·장승구·신창호 공역). 수지(水地). 경기도: 소나무. p.444: 地者 萬物之本原 諸生之根苑也. 美惡 賢不肖 愚俊之所生也 水者 地之血氣 如 筋脈之通流者也 故曰 水 具材也.

다리에 놓인 서수, 물의 의미, 홍예로 구성된 다리 조형물의 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에 귀면으로 해석되었던 부분을 위(虺)로 재해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귀면으로 해석된 부분에 대해 재고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형상을 면(面)으로만 보기 보다는 신체 전부와 동물상의 역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귀면의 소재처로 밝히고 있는 도철은 용생구자 중의 하나이다. 고대 문화의 용의 역할과 사용처가 다양하게 사용되어진 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교체계에서 귀(鬼)와 신(神)을 동정(動靜), 강유(剛柔), 소식(消息), 굴신(屈伸), 왕래(往來), 음양(陰陽)의 존재로 구분해 보았을 때 귀는 음(陰)적인 존재로 모두 꺼리고 기피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귀면이라는 형상이 건축물의 지붕에서도 해석되고 물과 연관된 금천교의 다리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금천교 서수의 의미는 풍수의 원리와 함께 궁장 안에 끌어들이는 물에 대한 의미를 더욱 깊게 한다.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생명의 기본이고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은 물에 의존하지 않고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물을 잘 가꾸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성인(聖人)이 해야 할 일이고 천자(天子)의 일이며 곧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군주는 덕이 없는 군주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의 발상이다. 또한 비를 바라는 소망으로 궁궐 금천교의 물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군주는 물을 잘 다스려야 권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으로 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천교에 놓인 서수의 구성에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을 관장하는 서수들을 놓아 금천교를 구성하였고 궁궐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물의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궁궐 금천교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태종실록』
2. 『세종실록』
3. 『태조실록』
4. 『광해군일기』
5. 『궁궐지』
6. 『산해경』. 장수철 역.(2015). 사단법인올제. 서울.
7. 『국조보감』. 제41권. 숙종1년(1675), 4월. 한국고전종합DB. (2020. 6)
8. 『상촌집』. 제20권. 시. 한국고전종합DB. (2020. 6)
9. 『冷齋集』. 卷之十五. 雜著. 春城遊記. 한국고전종합DB. (2020. 6)
10. 『연행록선집』. 연행기사. 잡기(雜記), 한국고전종합DB. (2020. 6)
11. 『지봉집』. 제21권. 침류대기. 한국고전종합DB. (2020. 6)

12. 관중(2016). 『관자』 (김필수 · 고대혁 · 장승규 · 신창호 공역). 소나무. 경기도.
13. 국립문화재연구소(2002). 『창덕궁 금천교 발굴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
14. 안휘준 · 전상운 · 정재훈 · 주남철(2005). 『동궐도읽기』.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서울
1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
16. 서울역사편찬원(2019). 『국역경북궁영건일기1』, 서울
17. 국립문화재연구소(2009). 『한국고고학사전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18. 김일권(2012).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서울.
19. 나상배(2003). 『언어와 문화』. 하영삼 역주.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20. 도간 · 범월봉(2015). 『착맥부 · 동림조담』, 김두규 역. 비룡출판사. 서울.
21. 박용조(2003). 『중국 사상에서의 鬼神에 대한 이해』, 부산 카톨릭대학 출판부. 신앙과 삶. Vol.- No.8.
22. 역사건축기술연구소(2018).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 돌베개. 과주.
23. 劉安(2013). 『淮南子 上』, 安吉煥編譯. 명문당.서울.
24. 정경연(2003).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서울.
25. 万依,(1996). 『故宮辭典』. 文匯出版社. 중국.
26. 王子林(2005). 『紫禁城風水』. 紫禁城出版社. 중국.
27. 권절수(2007). 한국 옛 다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 궁궐의 금천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28. 박성규(2004). 주자철학에서의 귀신론.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29. 박준영(2012). 중국 선진시기 귀신관념의 형성과 전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30. 이호선(2016). 命理學에 적용된 神의 意味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서울.
31. 조준형(1983). 고대 석조아치교양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창덕궁 금천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32. 황인선(2002). 周易에 있어서의 神의 意味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전.
33. 김우석(1978). 한국적 귀면문양의 조형성 및 시대적변천에 관한 분석고찰. 사대논문집. 제5집. 자연과학편.
34. 이호선(2020). 경복궁 근정전 월대 석난간에 설치된 서수 조각물의 내용 및 상징적 의미 연구. 건축역사연구 논문집. 129호.
35. E.B. Tylor(1889). 제도의 발전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On a Method of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 J.A.I. XVIII.

[논문접수 : 2020. 08. 19]

[1차 심사 : 2020. 08. 31]

[게재확정 : 2020. 08. 31]